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서울교회 온 성도들

11월 첫 주, 옥합을 깨뜨리기로

- 한 가정 한 평 사기 운동 펴 -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 당회는 11월 5일(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을 기해 건축헌금을 드리기로 결정하였다. 평당 1200만원으로 알려진 대지 구입비 100억원을 목표로 한 이번 건축헌금에 한 가정당 한 평 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성도들은 한 가정인 한 평을 사겠다는 가정, 가족 수를 따라 한 평 씩 사겠다는 가정, 또는 재산의 십일조를 바치겠다는 성도 등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종윤 목사는 비전 2000운동 새벽기도 때에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짓게 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돈으로 짓지않고 믿음으로 짓게 하옵시고, 기술로가 아니라 기도로 짓게 하옵시며, 말로 짓는 것이 아니라 베풀 찬 희생으로 짓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자자손손 물려줄 예배당 건축을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고 생활의 모든 것에서 절제하며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도 많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없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 이일로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도록 기도함은 물론 예배당 짓는 일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하려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옥합을 깨뜨려야겠다.



연속기도회 '95 비전2000운동 기간 중 24시간 연속기도실로 개방된 2층 예배실에는 교회를 찾아와 머리 숙이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I, II, III부 예배 후 전교인 노방전도

50일간의 기도와 전도 운동인 '95 비전 2000운동이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 발대식을 갖고 그 행진을 시작하였다.

오늘은 전교인이 I, II, III부 예배 후에 노방전도를 나간다. 예배 후 전도대별로 먼저 교회 앞 지정된 집결지에 모여 기도하고,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각각 정해진 구역으로 나가면 된다.

전도를 나갈 때에는 교회 표시가 된 명찰을 반드시 가슴에 달아 전도를 받는 이들이 전도자의 소속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비전 2000운동 본부는 이번에 여섯 종류의 전도지를 준비하였는데 태신자 초청서신으로도 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비전 2000운동 첫 주인 지난 한 주 동안, 성도들은 특별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오전 10시와 오후 10시에는 있는 곳에서 태신자와 교회를 기억하며 다니엘 기도회 동참하였다. 기간 중 24시간 개방하는 연속기도실은 교회를 찾아와 머리를 숙이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전

구분	교구	전도대상 지역	집결지
제 1전도대	1, 2교구	영동시장	교회정문 옆 주차장
제 2전도대	3, 4교구	교회 뒷편, 보람은행 - 영동사거리	보람은행 앞
제 3전도대	5, 6교구	제일은행 뒷편 - 논현국민학교 주변	교회 앞 ①
제 4전도대	7, 8, 9교구	제일생명 - 강남역	교회 앞 ②
제 5전도대	10, 11, 12교구	노보텔, 삼정호텔 부근	교회 앞 ③

는대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인도하도록 힘써야 한다. 아직 제출하지 못한 성도는 주변에서 대상자를 찾아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다락방, 전도회 모임 후나 심야전도단 등의 활동에 동참하여 전도할 수 있다. 태신자 카드는 이 운동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접수한다. (접수된 태신자의 명단은 3면에)



도회와 다락방과 교구 모임 후의 전도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주에도 행진은 계속 된다. 태신자 카드를 제출한 성도는 계속해서 자신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태신자와 만남을 갖고 기회 당

금주의 '95비전 2000운동

- ▶ 찬양예배 후 / 전교인 합심기도회
- ▶ 주일 I, II, III부 예배후 / 전교인 노방전도
- ▶ 매일 오전 5시 30분 / 비전 2000 새벽기도회
- ▶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 다니엘 기도회
- ▶ 매주 금요일 / 비전 2000 금요기도회
- ▶ 연속기도회
- ▶ 모든 모임 후 / 노방전도, 축호전도 및 잃은 양 찾아나서기
- ▶ 21일(토) 오후 5시 / 찬양집회 (중·고생, 대학생, 청년) - 401호

창세기 강해



야곱의 번영

(30장 24 - 43절)

이종운 목사

고용인의 주된 관심은 임금(賃金)에 있습니다. 임금 인상에 관한 협상을 위해서는 파업이나 노동쟁의도 일으킵니다.

야곱은 의심촌 라반과 임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이기적이며 속이는 자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머슴과 같이 일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소유가 없었습니다. 이용당한 셈이 된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관용있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라반을 위해 일하면서 야곱은 대인관계에서는 별 기쁨을 누리지 못했으나 그를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함으로써 성공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냐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니라"(엡 6:7-8)고 했습니다. 야곱은 눈가림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행하듯 충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번영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가 꿈 꾸었던 것보다 더 크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그의 안전, 보장, 먹을 양식, 의복을 구하며 하나님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필요를 넘어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가족과 큰 부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은 번영을 누리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I.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 일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하여 악착같이 벌고 남을 억누르고서라도 정상에 오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야곱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우선 야곱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부에 대한 탐심도 없었습니다. 14년을 머슴살이하고도 그는 처음과 똑같이 가난했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벗어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25, 26절). 그는 얼마든지 자기 유익을 챙길 수 있었으나 눈가림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자기 피나 부리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자기 방법을 고집한 일이 없습니다. 조용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그곳을 떠나기 위한 지난 과거사를 한마디 언급했을 뿐입니다. 아내와 자녀 외에는 구한 것이 없었습니다.

부해지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습니 다. 라반을 위한 무사기한 봉사 정신이 바로 그의 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부를 위해 힘쓰지 않은 것은 게을르거나 일하기를 거절했다거나 부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알고 있는 바는 자신의 수고가 라반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같은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고용주의 횡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 생산량은 감소하고, 시장경쟁에서 실패할 터이니 오히려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의심촌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중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롬.).

II.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일꾼이었습니다.

야곱은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딸을 주는 일로 속인 의심촌은 야곱을 번번히 이용합니다. 그런 의심촌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니 나는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무의미하고 억울하게 여겼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은 자타가 공인하였으며 라반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27절). 그리고 그의 희생적 사역에 대한 설명(31:36-42)에 부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인 라반은 자신이 받은 복이 야곱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용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을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III. 근심보다 믿음으로 일한 일꾼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은퇴나 사회보장제도가 없었던 당시에 야곱은 이러한 것보다 더 든든한 후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샅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점 있고 얼룩진 양과 염소를 자기 가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의 양은 아주 흰 것이 대부분이었고 염소는 검은 갈색을 띠고 있어 점있고 얼룩진 것은 드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장 37-39절에 나타난 방법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의 미신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칼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신 바를 야곱이 순종해서 얻은 것이라고 주석하였습니다. 광야에서 구리뱀을 바라보게 하여 치료하신 것은 구리뱀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이 치유의 기적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신앙은 상 받는 신앙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부해지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 다. 다만 고용주를 위해 부지런히 일했으며 재산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물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 순례자 컬럼 ✦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항량한 광야를 성소로 만들고 삭막한 불모지를 제단으로 바꿀 줄 아는 것이 성도다.

근고한 오늘을 탓하기 보다 약속있는 내일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결단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자다. 험난한 세상에서 찌르는 가시밭길을 참고 견디면서 원망과 시비 대신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듯 간절한 기도를 쉬임없이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다.

한말의 밀알처럼 자신은 죽고 희생하여 많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제자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사는 자요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를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는 자다.

■ 순례길에 만난 사람들 -

청소년 초청 찬양집회를 준비하는 미가엘 찬양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일 찬양예배가 시작하기 30분 전이면 어김없이 나와 회중의 찬양을 이끌어가는 젊은이들. 그 시간을 위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쉬임없이 찬양하고, 모이면 화음과 호흡을 맞추어 연습하면서 찬양한다는 이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반으려하심에 있음을 기억하며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그 본래적인 일들을 감당해 보려는 이들이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 능력과 치료와 임재를 체험한 불붙는 마음이 지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작년에 70인 전도단이 심야전도활동을 시작하면서 몇몇 젊은이들에 의해 구성된 이 찬양팀은 현재 권윤경 집사를 팀장으로 하여 7명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비전 2000운동에 즈음하여 청소년 초청 찬양집회 - 『그 나라 2000』을 갖기로 하고 준비에 여념이 없다. 팀을 이끌고 있는 권 집사는 “우리나라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등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깨워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게 함으로써 신앙의 본질을 깨우쳐 주는 일이 시급합니다” 라고 말한다. 아울러 청소년 찬양집회는 이 행사 후에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가질 예정인데 “현재 회원 1000명을 목표로 토요일마다 모이는 대학부를 중심으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하는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 교회 미래 지도자들이 연합의 구심점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덧붙였다.

미가엘 찬양 팀은 앞으로 토요일마다 계속될 찬양집회가 학업과 직업의 전선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 교제하며, 성경적인 인격을 쌓아가면서 교제와 진지함이 살아있는 영성 훈련의 현장으로 정착되어갔으면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

찬양팀 멤버들은 청년의 때 곧 끈고한 날이 이르기 전 창조주를 기억하는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가득히 나와 찬양하며 하나되는 모습을 꿈꾼다. 오늘도 그

들의 발걸음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젊은이들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진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찬양예배 전 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한시간으로 연장된다. 온 성도가 한 마음되어 온전히 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정·소·년·조·정·찬·양·집·회

‘그 나라 2000’
Thy Kingdom come...
2000

←

때 / 1995년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곳 / 서울교회 총 예배실

나라이 임하옵시며...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95비전 2000운동 태신자 명단 (다음 호에 계속 게재합니다)

전도지	태신자	전도지	태신자	전도지	태신자
배은회	배상일 유정중	최용걸	김규형 장병규 우종암	권용순	이종애 안천예 김영순
주경자	고화자 백기봉 남기남	유명석	김인순 음혜경	이명영	정종철 이진상 최재권
김숙자	이금자 안현정 권순자	박영옥	이윤희 고운희 김정희		황인원 박한상 박상원
	이성호 이인희 이경자	김병숙	최문수 김명중		이우영 설수환 김명남
	최옥기 정혜진	최화순	최오화 김봉환 전용길		유병수 문병연 배연용
최 읍	김상환 주영훈 최창석	전기섭	김영희 이상범 김영진		지중배 변운연 이길봉
이영순	이재양 황신엽	김 회	김종국 김 은	한금희	조봉환 전유향
최난수	최진삼 최진철 권금자	탁경준	박운수 이영호 문해식	김종자	박정옥 박병옥 김종수
김명심	홍춘달 최인순 홍순울	오규자	김관영 김대은 정정자	무 명	조경훈 조운행 장동숙
	유세걸 김진희 유재인	박순자	이복근 이상화 이상운	정혜순	김승배
	유재준	이민화	임상원 마정숙 우정자	박연순	정미근 최인원 윤무용
김경아	김동수 이혁준 신용우	김봉수	오남훈 박전희 두진옥		이경애
안 평	한승집 김기점	이신일	이경호 박종순 장형선	위성이	위영진 이윤희 임정은
김영아	김기수 이성철	김옥자	박순옥 김계영	강종찬	최진기 최규식 김상희
정옥수	변양근 김광연 이현옥	무 명	김상렬 이점자 김신희	신순우	강상현 박종서
고후덕	최상진 강순주 최상아	계오복	김철홍 제미라 김경숙	김모순	안병구 은경호
	최환우 양순례 최 원	유현주	제국삼 송사예 제홍섭	성춘모	조인호
박정순	이재승 하경수 김숙희	양숙란	신미자 이정분	조정옥	최철현 최원옥
최부남	변복기 김황열 김정수	서문석	한해경 백옥분 안태유	김영림	서기정 박미영 권나경
최순애	정후열 최옥태 정재용	박두호	신경옥 김준하 문정조	홍정호	이현순 서운경 이진규
장낙희	이순형 조정숙	박이준	박재준	이지은	이승일 김영임 이원규
김태기	송성심 정영근 양진환	강희자	천무자 정제희 김순근	최희수	김종근 최팔길 전계원

■ 스테반회 세미나를 다녀와서

강행군, 25시간!

김 일 용 (집사, 스테반회 간사)

38명의 일행의 발걸음이 닿은 제주도는 미국 땅에 온 것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지난 3일, 제주도에서 가진 스테반회 세미나는 25시간동안 그야말로 강행군이였다. 비행기, 배, 버스를 갈아타며 잠자는 것도 잊은 채 움직이며 또 움직였다.

이종윤 목사님께서서는 일반적 지도자에게는 추진력, 사교성, 안정감, 자기개발, 결단, 책임감이 요구되나 영적 지도력은 그와 같은 기능적 자질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연유되는 것임을 강조하셨다. 우리는 모두 영적 지도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였다. 네 개조로 분반하여 가진 토론회는 새벽 2-3시가 되도록 그치질 않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새벽 제단을 쌓

았다.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드린 찬송은 하나님 보좌에 닿았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열납하셨으리라는 확신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온 몸으로 체험하며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뜨겁게 뜨겁게 기도를 드렸다.

강의와 기도예 중점을 두다 보니 관광명소는 갈 수 없었으나 제주도에 관해 간단히 공부할 기회도 가졌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땅을 몇 곳 둘러보며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질서와 그 숨씨에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800년간 제주도를 지켜보았을 우뚝 선 '큰 바자나무'에 둘러서서 찬양할 때의 감격...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25시간의 여정 속에서 찬송하고 눈물흘리며 기도하던 서로의 모습을 연상해 보았다. 살아운동력 있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남은 주옥같은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충성되어 여거 직분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도록 시시때때로 내려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배운 영적 지도자들처럼 흠이 없고 온유하며 양무리에 본이 되고 근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하며 교회에 도착하니 제일 먼저 할 일이 생각났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전하자!"는 표어를 걸고 진행하는 '95 비전2000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었다. 제주에서의 우리의 강행군은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향해서도 계속 되어야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고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게시판



10월 학습·세례식

10월 학습·세례식을 18일(수) I, II부 예배 시에 거행한다.

이를 위한 교육은 16일(월) 오후 7시에 2층 예배실에서, 문답은 17일(화) 오후 7시에 4층에서 한다. 문의는 새가족부로 하면 된다.

강남노회 17회 정기회

우리 교회당에서 개최키로

서울 강남노회 (노회장 권영표 목사) 제 17회 정기회가 오는 11월 7일(화) 오전 9시 30분 우리 교회당에서 회집된다. 당회는 준비위원을 확정하고 150여 명의 총대를 맞이할 준비에 들어갔다.

크라인벨 교수 내한

23일, 목회자세미나서 강의

상담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진 크라인벨(Clinebell) 박사가 오는 21일에 내한하여 23일(9월),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주최하는 목회자 신학 세미나에서 강의를 한다. 크라인벨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명예 교수로 있다. 이종윤 목사는 이들 내외분의 내한을 환영하는 환영만찬회를 한국 기독교 상담문화원 이사들과 함께 주최한다.

탁아부

학부모초청 좌담회

24일(화) 오전 11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찾아 10월 중 전체 심방을 하기로 했다. 또 결실의 계절에 각자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기도의 모임을 가지는 등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열심을 내고 있다.

24일에 학부모 초청 좌담회를 갖고 교회와 가정이 하나되어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사랑부

“사랑부실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II부 예배 후 청년들의 힘 필요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사랑부 학생들은 교회 버스와 봉고를 타고 교회까지 온다. 막상 교회에 도착한 후에도 사랑부실까지 가는 일이 쉽지가 않다. 힘있는 청년들의 손길이 아쉽다. 사랑부 학생들이 탄 버스와 봉고는 시간은 II부 예배가 마치는 시간에 교회에 도착한다.. 사랑부 교사로 봉사하지 못해도 이 시간 잠깐

돕는 손길이 사랑부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유년부

손으로 쓰는 성경

마땅히 행할 길 가르치기 위해

유년부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귀중함을 체험케 하기 위해 성경 중 가장 긴 장(章)인 시편 119편을 손으로 써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학생들이 성취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트를 고안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한 교사들은 한자, 한자 써 내려갈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 어린이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어, 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아울러 저학년인 어린이들이 12월 말까지 3개월간, 인내 가운데 이 일을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과 기도와 격려의 말로 응원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기습 인터뷰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아닌 교회학교의 개념으로 교육을 중요시 하고 있는 만큼 새 예배당을 지을 때 탁아나 유치원 시설, 경로대학 등 주간 교육 및 사회복지를 위한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로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서 교육 뿐 아니라 부서별 회의, 친교활동 등이 예배당 내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정희 집사 / 고등부 교사)

●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계단 대신 램프를 설치하여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공중전화 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몸에 장애를 가졌지만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무한히 잠재해 있을 그들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 교육이 전문화 되었으면 합니다.” (한정은 / 사랑부 교사)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① 10월 16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이종윤 목사)
제 2교시 / 폭력에 의한 인성 상실과 그대안(남재현 박사)
- ② 10월 23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이종윤 목사)
제 2교시 / 어떻게 교회를 전인 회복의 센터가 되게 할까? (크라인벨 박사)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2. 비전 2000운동을 통해 첫 사랑을 회복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3.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옵시고 태신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4. 목회자세미나가 한국교회의 갱신에 기여하게 하옵소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